

서울 금호미술관 '열은 공기 속으로'展... 흑백을 바탕으로 한 회화·영상·사운드 설치작품 선봬

## 色이 넘치는 세상, 무채색의 무게란...

온갖 색채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흑과 백을 중심으로 한 무채색이 던지는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서울 사간동 금호미술관에서 열리는 '열은 공기 속으로'전은 시각의 큰 영역 중 하나인 색채를 단지 '흑과 백'으로 제한하고, 무채색과 공간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전시에는 미술, 음악,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온 작가 9명이 참여해 무채색 색상을 바탕으로 청각과 촉각 등 여러 감각을 자극하는 회화, 영상, 사운드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대형 드로잉의 평면작업부터 사운드와 같은 비물질적인 소재

를 이용한 작업들을 통해 독특한 환영을 만들어 낸다. 전시기획자 김윤옥 큐레이터는 "가장 기본적인 색인 무채색이 주는 중성적 미감과 조형성에 보다 집중해 보고자 기획했다"며 "작가들이 무채색의 조형성에 대한 실험들을 확인해 보는 기회로 시각뿐 아니라 촉각이나 청각 등 작품이 가지는 다중적인 감각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영은 1층 홀의 유리 위에 건물의 정면을 장식한 화강석 재질의 벽돌과 같은 크기의 입방체 모양을 한 필름을 설치했다. 흰색, 회색, 검은색의 유닛들이 음악적으로 반복되면서 확장하는 작품의 제목 '인벤션 4번'은 음악용어에서 차용했다. 1층 안쪽 전시장은 공간과 물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온 박기원의 작품 '낙하'를 설치했다. 얇고 얇은 비닐을 여러 겹 반복하고 그 안쪽에 타원형의 조명을 설치해 가장자리의 넓고 큰 창 너머로 빛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2층은 특유의 곡면형태로 디자인된 가구디자인 이너 하지훈의 의자에 반쯤 누운 상태에서 이우준의 영상과 사운드를 감상하도록 했다. 그 옆방에는 한쪽 벽에 안개로 채운 듯한 공간에 서서히

움직이는 나무 한 그루를 재현한 이기봉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

3층은 종이 위에 연필을 반복적으로 마찰시켜 흑연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김은주 작가의 대규모 작품 '바람'과 '가만히 꽃을 그려 보다'가 설치돼 있다. 그 옆 공간은 동양화의 특성과 소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을 해 온 권기범의 벽화작업으로 채워져 있다.

작가는 검은색 고무줄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질 때 나타나는 물성과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한 뒤 드로잉으로 탈바꿈시켰다. 동양화의 먹색이 주는 명료함과 선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드로잉, 벽과 벽을 잇는 스트링 작업이 어우러져 공간감을 극대화시킨다.

지하 1층 공간에는 영상과 사운드를 통해 마음 속에 존재하는 공간의 원형들을 시각화하는 홍범 작가의 영상 및 사운드 작품 '5개의 방'과 98개의 스피커로 공간에 입체적 형상을 만드는 김상진의 사운드 조각 '고지로 간다'가 설치됐다. 전시는 8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 720-5114.